

# 시인·교육자·종교인으로 재조명

## 영담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기념시비 영월에 제막

한국현대시조의 거장이자 애국지사였던 영담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념시비 제막식이 10월 24일 김어수 법사 생가터인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에서 거행됐다. 영월문화원(원장 엄태성)이 주최하고 '김어수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선양회장 신대식)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박신규 영월군수, 장경재 영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영월군 지역인사와 직동리 마을 주민들, 김어수 법사의 제자 상옥 스님(남양주 불암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인, 불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 시낭송회, 기념시비제막식,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 강연회에서 동국대 김동준 명예교수는 "김어수 시인은 한국시사의 큰 문장을 열어놓은 현대시조시인의 영역 뿐만 아니라 항일청년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교육자, 종교인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월출신 시인 유정의 사화로 열린 김어수 시인 시낭송회가 열렸다. 김어수 기념공원에 새롭게 김어수 시인 기념시비가 세워졌다. 기



김어수 시인의 '불비'가 새겨진 기념시비를 제막식 참석자들이 보고 있다.

존에 세워진 시비가 시조의 울림에 맞지 않아 다시 세우게 된 것이다. 특히 김어수 시인의 시 '불비'를 새긴 이 시비는 63톤에 이르는 보기 드문 거석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가터 인근에서 발견돼 이번호에 세워지게 됐다.

식전행사에서 이어 영월지역 태생인 문태성 시인의 사화로 열린 기념식에서 엄태성 영월문화원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발굴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박신규 영월군수는 축사에서 "김어수 시

인 선양 사업은 영월군이 지속적으로 일구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축하말 끝에 김어수 시인의 미발표 유작이었던 '영산(影山)'을 낭송했다.

장경재 영월군의회 의장 역시 선양사업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밝혀 김어수 시인 선양사업은 이번 기념식을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장에서 김어수 법사의 제자 상옥 스님은 미발표 유작시 '설야를 태우는 정' '영산'을 발표했고 신대식 선양회장은 "김어수 시

인께서 해방을 맞아 귀국한 김구 선생 귀국장에 한국문단을 대표하여 영접을 나간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행사장 주변에는 경봉 큰스님이 김어수 법사에게 내린 시를 비롯해 제자 상옥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김어수 법사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영월군 중동면 단풍산 밑에 자리한 김어수 시인 기념동산은 맑은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백산맥 중턱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영월에서 태어난 김어수 법사는 부친이 일제강점기의 부당성을 상소한 후 왜경의 눈을 피해 부산으로 옮겨 살게 됐다.

이후 범어사에 출가해 25년간 승려생활을 했고 불교청년동맹 문화부장으로 항일청년운동을 하다 발각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를 졸업하고 주로 부산지역에서 교직생활과 포교활동을 했고 1969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중앙상임포교사로 임명됐으며 1985년 1월 7일 입적했다.

이규래 강원지사장

# 휴휴암서 수록영가 천도재 봉행

## 11월 10일... "산 자가 죽은 자에 베푸는 자비 축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이 끊이지 않는 100일 철야기도 도량,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양양 휴휴암에서 수록영가 천도재가 봉행된다.

양양 휴휴암(회주 흥법)은 11월 10일 경내에서 수록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수록영가 천도재는 수록재로도 불린다. 모든 물과 물에 사는 미물중생과 축생 등의 죄업을 씻기 위해 치러지는 의례인 수록재는 특히 인간이 못 생명에 부처님 법을 통해 자비를 베푸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이 바뀌어 나뉜 관음성지 현신도량 휴휴암은 해마다 음력 9월 24일 관음재일이면 성대하게 수록영가 천도재를 봉행해왔다.

흥법 스님은 "수록영가 천도재는



휴휴암 지혜 관세음보살상.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베풀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는 자비의 축제"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휴휴암은 경내 동쪽에 조성 중인 지혜관세음보살 점안식을

조동섭 기자

# "보살계 지키는 청정불자 되기를"

## 축서사·직지사서 보살계 수계법회

봉화 축서사와 김천 직지사서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잇따라 거행됐다.

봉화 축서사(주지 무예)는 10월 24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무여 스님이 전계대회상을, 도일 스님이 갈마아사리, 철우 스님이 교수 아사리를 맡아 진행한 행사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임태항 봉화군수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는 삼귀의례와 보현행원, 헌

공, 신도회장의 환영사, 고운사 주지 스님과 봉화군수의 축사, 무여 스님의 법어, 바라밀할창단의 축가, 발원문 등이 진행됐다. 2부에는 수계의 식과 철우 스님의 법어, 연비, 계첩 수여 등이 이어졌다.

무여 스님은 법어에서 "보살은 스스로 자기의 이상인 불도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자기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남에게 봉사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보살계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아서 위없는 보리를 이루고 성스러운 도를 성취하는데 기조

가 된다"며 "항상 계를 지키는 청정한 사람이 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만다"고 당부했다.

한편, 28일에는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에서 제12회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가 봉행됐다.

경내 만덕전(금강계단)에서 열린 행사에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불공 및 축원을 시작으로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진행됐다. 참석된 대승들은 전계대화상 녹원 스님, 갈마아사리에 도원 스님, 교수 아사리에 성웅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마친 내 부처를 이룰 것을 서원했다.

순법전 대구지사장 박영애 영주지국장

# "생명 존엄사상 마음에 새기자"

## 강릉 현덕사, 동식물 영혼 천도재 봉행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10월 24일 제 10회 동식물 영혼 천도재를 봉행했다.

창건 10주년 기념대법회와 함께 봉행된 천도재에는 동식물 영혼천도와 생명의 소중함을 위한 추모공연, 동식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 및 방생이 봉행됐다. 또한 극락전 기공식과 지역 어르신 500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로잔치가 함께 열렸다.

동식물 영혼천도재는 현덕사가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동식물과 전국 도로



동식물 영혼천도 추모공연 모습.

위에서 무참하게 생명을 잃고 있는 동물, 실험용으로 숨겨진 동물 등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매년 봉행해 왔다.

현종 스님은 "현덕사가 동식물 영가 천도재를 마련한 것은 불성을 지녔던 동식물 부처님들을 위로하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생명의 존엄사상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하는 뜻"이라며 "모든 존재가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깨우는 자리가 돼 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출범

## 영월 법흥사서 의식개혁 운동 첫발

의식개혁 운동단체인 '평화로운 세상만들기(대표이사 도안·법흥사 주지)'는 10월 23일 영월 법흥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10만동 밝히기 대법회와 함께 봉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들과 불교신도, 주천고교 불교학생회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 헌관식, 축하공연 순으로 열렸다.

도안 스님은 "대법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회혼란의 주된 원인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견해를 배척하는데 있다"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그간 민주주의 확신을 통해 권리의식은 크게 성장했

지만 책임의식은 결여돼 왔다"면서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곧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로운 세상만들기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목록으로 △매일 가족과 5분 이상 눈 마주하며 이야기하기 △어제 즐거웠던 일 하나 떠올리기 △하루 10분 '나는 누구인가' 명상하기 △하루 한번 다른 사람 칭찬해주기 △하루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기 등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1단계 사업으로 내년 2월 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하고 6월경 서울경기지역본부 설치, 8월경 제1회 청소년 평화캠프를 계획했다. (033) 375-9173 이규래 강원지사장

#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창립

## 14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법회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승원·백련사 주지)는 11월 14일 오후 2시 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66보병사단, 아전수송교육단 등 많은 군부대가 위치해 전법과 교화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가평에는 60여 사찰이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암연합회가 결성되지 못했다.

승원 스님은 "가평군 발전과 불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평 불교사암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지역복지활동, 포교와 관련한 연대활동, 환경운동, 종교간 대화활동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문하고, 자비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가평을 위해 10kg들이 쌀 500포가 지역 불우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031)585-0686 조동섭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 효찰대본산

# 용 주사

주 지 호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국장 성 무    교무국장 탄 응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덕 조    포교국장 덕 본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테이